

군산, 노후 공동주택 통합관리 전국 ' 으뜸'

14년째 시행... 총 379개 단지에 73억원 지원 내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 시범 운영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통합 관리 운영 시스템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관리의 중요성 및 공공의 역할이 확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군산시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 사업,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 운영, 안전점검유역 시행 및 위험시설 정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노후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확대 시행 및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14년째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79개 단지에 7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30년 이상된 91개단지에 4천여세대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3~4개 권역으로 나누어 2020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1개 권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군산시는 관리주체가 없는 20년 이상 노후된 150여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104개 단지 256개 등에 대해 전문업체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물리환경개선 및 건물수명 연장을 위한 적정 보수·보강안을 제시하고 긴

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사업에 우선 선정, 위험담장 철거사업 등을 연계 실시했다. 이외에도 내년에는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확대 강화하고,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전문자문단 운영 및 우수단지 표창 등 신규 사업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분쟁민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공동주택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및 대학생위원회가 합동 발대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2020년 총선, 청년이 버팀목 돼 주길"

민주 군산지역위, 청년 및 대학생위원회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신영대) 청년위원회 및 대학생위원회가 합동 발대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민주당 청년위원회(위원장 박광일) 및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오동근)는 지난 24일 A부패에서 신영대 지역위원장, 김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지역위 청년위·대학생위원회 합동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청년이 군산의 미래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민주당 군산청년위원회 및 대학생위원회는 2020년 총선승리를 위한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일자리위원회 ▲청년정치위원회 ▲청년미래정치위원회 ▲문화청년체육위원회 등을 구성해 청년들의 고민을 풀어 나가고 청년 등의 역할이 자리 잡

을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함께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박광일 청년위원장은 "군산의 많은 청년들이 교육, 취업, 창업, 거주, 출산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한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청년이 모이고 청년이 잘하는 청년위원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동근 대학생위원장은 "대학생의 열정과 패기를 하나로 모아 대학생위원회가 자부심을 갖고 정당정치에 주체로서 총선승리를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위원장은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요 군산의 미래다. 청년이 강하면 민주당이 강해지며 군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며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청년과 대학생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시민참여 내 나무심기 행사

인화공원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지 옛뚝이 시민의 숲 진행

익산시가 환경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시민 참여운동으로 내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했다. 시는 25일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주관, 익산시·익산산림조합이 협조한 내 나무심기 행사가 인화공원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지 옛뚝이 시민의 숲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익산시민 133명과 6개 단체에서 참여해 본인의 이름과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소나무, 느티나무 등 교목 133주와 영산홍, 화살나무 등 480주, 총 613주의 수목을 식재하고 기증자중 희망 메시지와 수목표찰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 나무심기 행사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환경친화도시 익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내 나무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 나무심기 운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854-430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인천기자

익산,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원

익산시는 운송사업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승합차 포함) 2대, 전기화물차 5대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받겠다고 25일 밝혔다. 보조금액은 대형버스 최대 2억7400만원, 중형승합차 최대 6816만원이 지원되며 화물차는 소형(1톤) 3500만원, 경형 1750만원, 초소형 812만원이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가능 차종 및 보조금 등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포털·홈페이지(<https://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 중앙고, 2019 전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3위 수상

군산 중앙고(교장 박진무) RICE응급처치동아리(지도교사 정성민)가 2019년 전국 중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전국 3위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한 2019 전국 중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전국 15개 시도지사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법 경연대회 중고등부 우승팀 또는 성적우

수팀이 참가해 진행되는 전국 규모의 대회다. 지난 23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대회에 참가한 중앙고 RICE응급처치동아리 학생들은 그동안 지역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유독 전국대회에서는 긴장한 탓인지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올리는 전국 3위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정성민 지도교사는 "동아리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실제 응급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는 능력을 길렀으면 하는 바램이며 앞으로는 중앙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진무 교장은 "그동안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며 노력해 준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학부모님들과 학교 동아리 관련 지도교사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중앙고 RICE응급처치동아리가 2019년 전국 중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전국 3위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원광대병원, 미래 혁신 포럼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최근 외래동 4층 대강당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2030 병원 미래 혁신 포럼을 열었다. '스마트 헬스시티와 스마트병원, 어떻게 구축 할 것인가'라는 혁신 포럼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과 병원이 헬스케어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가고, 혁신적인 보건 의료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또한 포럼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정세에 대처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빅 데이터, 인공지능(AI), 바이오 융·복합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네트워크를 갖추어 글로벌 병원으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열렸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인구정책 원탁토론회 시민 참가자 모집

군산시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탁토론회를 개최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12월 21일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고자 마련됐으며 대표적인 해결과제로 제시되는 양육, 보육, 청년,일자리, 고령화(노인복지, 은퇴자 지원)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각 주제별로 관심 있는 시민

참여자 모집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 및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논의 및 발굴 후 해당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토론회 참여는 군산시민과 관내 소재의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군산시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12월 6일까지 토론 희망분야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이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